

오뒷세이아

호메로스 지음 / 천병희 옮김

I 신들의 회의 후 아테네가 텔레마코스를 격려하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¹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²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천우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애썼건만 그는
천우들을 구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바보들이 헬리오스 휘페리온³의
소 배를 잡아먹은 탓에 헬리오스 신이 그들에게서 귀향의 날을

빼앗아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해 아무 대목이든,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여,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갑작스런 파멸을 면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전쟁과 바다에서 벗어나 이제 집에 돌아와 있건만

귀향파 아내를 에타게⁴ 그리는 오뒷세우스만은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하고 존경스런 요정 킬립소⁵가

자기 남편으로 삼으려고 속이 빈 동굴 안에 붙들어두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이타케⁶로 귀향하도록 신들이 정해준

해가 돌아와도 그는 노고에서 벗어나 그곳에 가 있지 못했고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못했다. 그러자 모든 신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으나 오직 포세이돈만이 그렇지 않았으니,
포세이돈은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가 고향 땅에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를 노엽게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포세이돈은 저 멀리 아이티오페스족⁶에게 가고 없었다.

인간들 중에서 가장 먼 변방에 사는 아이티오페스족은 돌로 나뉘어 일부는 휘페리온이 지는 곳에, 일부는 뜨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황소들과 양들의 헤카툼배⁷를 받을 참이었다.

포세이돈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의 전치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신들은 올림포스⁸의 주인인 제우스의 궁전에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인간들과 신들의 아버지⁹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제우스는 아가멤논의 아들로 명성도 자자한 오레스테스의 손에 죽은,

나무랄 데 없는 아이기스토스¹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기스토스를 떠올리며 제우스는 신들 사이에서 말했다.

“아아, 인간들은 절뚝하면 신들을 탓하곤 하지요.

그들은 재앙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못된 짓으로 정해진 몫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아이기스토스만 하더라도 귀항하던 아트레우스의 아들¹¹을 죽이고 정해진 몫을 넘어 아가멤논의 아내와 결혼까지 했소!

그것이 자신의 갑작스런 파멸이 될 줄 알면서도 말이오.

우리는 훌륭한 정탐꾼인 아르고스의 살해자¹² 헤르메스를 보내

오레스테스가 장년이 되어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되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살해한 데 대해 복수하게 될 것이니

그를 죽이지도, 그의 아내에게 구혼하지도 말라고 미리 알려주었소.

하지만 이런 호의적인 말로도 헤르메스는 아이기스토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아이기스토스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소.”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했다.

“오오!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크로노스의 아드님¹³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그자의 파멸은 당연한 응보예요.

그런 것을 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 것처럼 파멸하게 되기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명한 오뒷세우스 마로 그 불운한 사람에게요. 그는 벌써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에서, 바다의 배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수풀이 우거진 이 섬에는 한 여신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모든 바다의 깊이를 다 알고 있고

평과 하늘을 갈라놓는 긴 기둥들을 몸소 떠받치고 있는

마음씨 고약한 아틀라스¹⁴의 딸이에요.

그의 딸이 지금 비탄에 잠긴 그 불행한 사람을 붙들어두고 이타케를 잊어버리도록 졸골 감언이설로 호리고 있어요.

그러나 오뒷세우스는 고향 땅의 연기가 오르는 것이라도 보기를 열망하며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럼에도 지금 그대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올림포스의 주인이시여! 혹시 오뒷세우스가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¹⁵인들의 함선들 옆에서 그대에게 제물 바치기를 소홀히

했나요? 어쨌서 그대는 그에게 그토록 노여워하세요, 제우스시여?”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 딸아, 너는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

내 어찌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를 잊었겠느냐?

그는 지혜에서 인간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신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제물을 바쳤느니라.

하나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 그를 끊임없이 노여워하는구나.

오뒷세우스가 모든 키클롭스¹⁶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센, 신과 같은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했기 때문이지.

그 쿨롭스¹⁷를 낳은 것은 요정 토오사인테 그녀는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리는 포르퀴스¹⁸의 딸로 속이 빈 동굴 안에서 포세이돈과 살을 섞었었지.

그때 이후로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오뒷세우스를 죽이지는 않되 그의 고향 땅에서 멀리 떠돌아다니게 했던 것이니라.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오뒷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귀향에 대해 궁리해봅시다.

포세이돈은 노여움을 풀 것이요, 혼자서는 결코 전(全) 불사신들에 맞서 대항하지 못할 테니 말이요.”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했다.

“오오!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현명한 오뒷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 진실로 축복 받은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는 신들의 사자(使者)인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를 오귀기에 삼¹⁹으로 보내 머리를 곱게 깎은 요정에게 침울성 많은 오뒷세우스의 귀향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지체 없이 일러주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요.

나는 이터케에 가서 오뒷세우스의 아들을 더욱 격려하고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거예요. 그가 장별의 이카이오이족²⁰을 회의장에 소집해 그의 때 지어 사는 작은 가족²¹들과 결음이 무겁고 뽕이 구부러진 황소들을 꿈입없이 잡아먹는 모든 구혼자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말해요.

나는 그를 또 스파르테²²와 모레가 땅은 펠로스²³로 안내해 혹시나 들게 될지도 모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아테네가 영원불멸하는 아름다운 황금 샌들을 발밑에 매어 신으니, 바로 이 샌들이 바람의 입김과 함께 습한 바다와 끝없는 대지 위로 그녀를 날라다주었다.

이어서 끝에 날카로운 창동이 박힌 단단한 창을 집어 드니 바로 이 무겁고 크고 튼튼한 창으로 강력한 아버지의 딸인 그녀는 자기를 노엽게 하는 영웅들의 대열을 무찌르곤 했다.

아테네는 올림포스 꼭대기에서 훌쩍 뛰어내려

이터케 땅에 있는 오뒷세우스 집 바깥 대문의 문턱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손에 청동 창을 들고 있고 나그네

족, 티포스인들²⁴의 지도자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녀는 거만한 구혼자들과 만났는데

그들은 손수 잡은 황소들의 가죽을 깔고 앉아

문 앞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전령들과 민첩한 시종들²⁵ 중에서 전령들은 회석용 동이²⁶들에다 포도주에 물을 타고 있었고, 시종들은 더러는 구멍이 뽕뽕 뚫린 해면으로 흠친 식탁들을 앞에 내놓았고, 더러는 고기를 꾸집하게 썰어 내놓았다.

그녀를 맨 먼저 본 것은 신과 같은 텔레마코스²⁷였다.

비통한 마음으로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있던 그는 어디선가 출연하 아버지께서 나타나 온 집 안에서 이 구혼자들을 내쫓으시고 몸소 명예를 차지하시고는 재산을 다스리셨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훌륭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는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테네를 보자 곧장 바깥 대문 쪽으로 갔으니 오랫동안 나그네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는 가까이 다가서서 나그네의 오른손을 잡고

청동 창을 받아 들며 나그네를 향해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여! 여기 우리 곁에서 그대는 환대 받을 것이요. 우선 식사부터 하고 그대의 용건을 말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앞장서자 펠라스아테네가 따랐다.

그러하여 그들이 놀다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반들반들 갈닥인 창끝이에다 들고 있던 창을 꽂고는

긴 기둥에 기대어 놓았다. 창끝이에는 이미 많은 창이 꽂혀 있었는데 그것은 참을성 많은 오뒷세우스의 창들이었다. 텔레마코스는 여신을 안내해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안락의자에 앉혔는데 그 위에는 린네르가 깔려 있고 밑에는 발을 위한 발판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구혼자들에게서 떨어져 그 옆에다 정교하게 만든

등받이 의자 하나를 자신을 위해 갖다 놓았다. 나그네가

떠들썩한 구혼자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오만발썩한 자들 사이에서 식욕을 잃을까 염려되는 데다, 떠나고 안 계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곧 시녀 한 명이 아름다운

황금 물항아리를 가져와 손을 씻도록²⁸ 은(銀)대아 위에

물을 부어 주더니 그들 앞에 반들반들 닦은 식탁을 갖다 놓았다.²⁹

그러자 존경스런 가정부가 빵을 가져와 그들 앞에 놓고 그 밖에도 많은 음식을 올리더니 자기 옆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건네 주었다.

고기를 썰어 나누어주는 자는 온갖 종류의 고기가 든 접시들을 배식대(配食臺)에서 꺼내 놓았고 그들 앞에 황금잔을 놓았다.

그러자 이 집의 전령이 부지런히 오가며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었다.

그때 거만한 구혼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등받이 의자와 안락의자에 순서대로 앉자

전령들은 그들의 손에 물을 부어 주었고

하녀들은 그들 앞의 비구니에도 빵을 수북이 쌓아 놓았으며, 젊은 시종들은 희식용 동이들에 술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

그러자 그들은 앞에 치러진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이윽고 먹고 마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구혼자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 즉 노래와 춤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니, 그런 것들이야말로 잔치의 극치인 것이다.

전령이 페미오스³⁰의 손에 더없이 아름다운 키타리스³¹를 건네 주니,

그는 그 동안 강요에 못 이겨 구혼자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 왔던 것이다.

페미오스는 키타리스를 연주하며 감미롭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한편 텔레마코스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까이 틀이대며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에게 말했다.

“나그네여,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화를 내시지는 않겠지요?

저들은 키타리스와 노래 같은 일들에 흥미가 있겠지요. 태평한 사람들이니까요. 저들은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베클이 벌써 육지 어딘가에 누워 빗속에서 쉼어 거거나

바다에서 너울에 구르고 있을 그분의 살림을 먹어 치우고

있으니 말이요. 그분께서 이타케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들은 모두 황금과 의복에서 더 부유해지기보다는

결음아! 날 살려라, 기도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는 사악한 죽음을 맞으셨고, 지상에 사는 인간들 중 누군가가

그분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위안도

되지 못하요. 그분의 귀향의 날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자, 그대는 이 점에 대해 내게 솔직히 말해 주시오.

그대는 인간들 중에 뉘시며 어디서 오셨소? 그대의 도시는 어디며

그러나 마음이 너그러운 오웻세우스는 동물 안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에 앉아 울면서 눈물과 신음과 슬픔으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으니 그는 전부터 늘

눈물을 흘리며 주수할 수 없는 바다를 바라다보곤 했던 것이다. 어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빛나고 번쩍이는 안락의자에 앉게 한 다음 헤르메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형금 지팡이의 헤르메스여, 존경스럽고 반가운 분이여.

천에는 자주 찾아 주시지 않더니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대의 마음 속 생각을 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이를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가까이 이루어 드리겠어요. 자, 이리로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대에게 접대 음식을 내놓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여신은 그의 앞에다 식탁을 펴놓고는

암브로시아를 그득히 차리고 불그레한 넥티르⁹⁾를 섞었다.

그래서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식사를 하여 음식으로 마음을 즐겁게 한 다음

이윽고 그녀에게 이런 말로 대답했다.

“그대가 여신으로서 남신인 나에게 이리로 온 까닭을 물어보니 나는 그대의 명령에 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소. 내가 이리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제우스의 명령에 의한 것이요.

하긴 누가 자진하여 이토록 광대한 켄 바닷물 위를

달리고 싶어하겠소? 이 근처에는 신들께 제물과

정선된 헤카툼베를 바치는 인간들의 도시도 없으니 말이요.

그러나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계획을 어떤 다른 신이

비켜 가거나 좌절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절에는 구 년 동안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둘러싸고 싸우다가 십 년 만에 그 도시를 함락하고 귀향길에 오를

그 시내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한 사내가 있다고 하셨소. 그들은 귀향하며 아테네에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신이 그들에게 사악한 바람과 긴 너울을 일으켰던 것이요.

그리하여 그의 다른 훌륭한 전우들은 다 죽고

그는 바람과 너울이 이리로 날라다 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제우스께서는 그를 되도록 빨리 보내 주라는 분부시오.

그는 가족들과 떨어져 이 곳에서 죽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만나보고 지붕이 높다란 집과

고향 땅에 닿는 것이 여전히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그가 말하자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몸서리치며

그에게 불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무정하시도다, 그대들 남신들은. 그리고 그대들은 유별나게 질투심이 강하시죠. 그대들은 어떤 여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삼아 공공연히 인간과 동침하게 되면 이를 질투하시니까요.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오리온¹⁰⁾을 태웠을 때도

안락한 생활을 하는 그대들 신들은 이를 질투하셨고,

금기야 형금 왕좌의 순결한 아르테미스가 오르튀기아에서

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화살들로 그를 죽였지요.

또 머리를 곱게 깎은 데페테르가 자기 마음에 굴복하여

새 번이나 갈아 놓은 목정밭에서 이아시온과 사랑의 동침을

했을 때도 제우스께서는 오랫동안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고

번쩍이는 번개를 던져 그를 죽이셨지요.”

이번에는 또, 신들이여, 그대들은 한 인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질투하시는군요. 그는 내가 구해 주었어요. 그가 혼자 배의 용골에

걸터앉아 있을 때 말예요. 제우스께서 포도꽃빛 바다 한 가운데에서

번쩍이는 번개로 그의 날랜 배를 부수고 쪼개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그의 다른 훌륭한 전우들은 다 죽고

그는 바람과 너울이 이리로 날라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 돌보아 주었고

그에게 영원히 죽지도 늙지도 않게 해 주겠다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아이기스를 가지신 제우스의 계획을 어떤 다른 신이 비켜 가거나 좌절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것이 제우스의 요구이고 명령이라면 그로 하여금

주수할 수 없는 바다로 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를

호송해 주지는 못해요. 내게는 노를 갖출 배들도 없고

바다의 넓은 등으로 그를 데려다 줄 전우들도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는 그가 아무 탈없이 고향 땅에 당도록

그에게 전심으로 조언해 주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에게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말했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그를 보내 주시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하시오.

혹시 그분께서 나중에 화가 나서 그대에게 가혹하게 대하시지 않도록 말어요.”

이렇게 말하고 강력한 아르고스의 살해자는 떠나갔다.

한편 존경스런 요정은 마음이 너그러운 오뒷세우스에게 갔으니,

제우스의 전언을 그녀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서 보니 그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귀한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가운데

그의 달콤한 인성은 하루하루 홀려갔으니 그에게는 더 이상 요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러나 그는 밤에는 속이 빈 동물 안에서

마지못해 원치 않는 남자로써 원하는 여자인 그녀 곁에서 잠자곤 했다.

그러나 낮에는 그는 바닷가 바위들 위에 앉아

눈물과 슬픔으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바라다보곤 했다.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그녀가 가까이 다가서며 그에게 말했다.

“불운한 이여,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이 곳에서 슬퍼하며 인생의 나날들을

허송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그대를 가까이 보내 드릴 테니까요.

저, 그대는 키 큰 나무들을 배어 청동으로 넓직한 뗏목 하나를

짜맞추고 그 위에다 높다랗게 축벽을 세우도록 하세요.

그것이 그대를 안갯빛 바다 위로 실어다 주도록 말예요.

그리면 나는 그 안에다 굶주림으로부터 그대를 지켜 줄

뺑과 물과 불그레한 포도주를 넉넉히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에게 옷을 입혀 주고 뒤에서 순풍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대는 무사히 그대의 고향 땅에 닿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계획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나보다 더 강력한

넓은 하늘에 사는 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말예요.”

이렇게 그녀가 말하자 참을성이 많은 고귀한 오뒷세우스가 몸서리치며
그녀에게 물 흐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여신이며, 그대는 나를 보내 줄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나더러 뗏목을 타고서 무섭고도 힘든 바다의 큰 심연을

건너라고 명령하시니 말예요. 그 곳은 제우스의 순풍을 즐기는

엘리 달리는 균형잡힌 배들조차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대의 뜻을 거슬러 뗏목에 오르지 않을 것이요.

그대야, 여신이며, 나를 해치려고 또다른 재앙을 피하지 않겠다고

큰 맹세를 해 주시기 전에는 말예요.”

이렇게 그가 말하자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미소짓고

한 손으로 그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을 생각해 내고 말하더니

그대야말로 진실로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이구려.

그렇다면 메지와 저 위의 넓은 하늘과 떨어지는 스틱스¹² 강의 물이

내 증인이 되게 하세요. 스틱스 강이아말로 축복받은 신들에게

가장 크고도 가장 무서운 맹세니까요.

나는 그대를 해치려고 다른 재앙을 피하지 않겠어요.

아니, 오히려 나는 내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나 자신을 위하여

생각해 내게 될 그런 것들을 그대를 위하여 생각하고 공리하겠어요.

나도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가슴 속 마음도

무쇠가 아니라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그녀가 서둘러 앞장서자

그는 여신의 발자국을 바짝 뒤따라갔다.

여신과 사내가 속이 빈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곳에서 헤르메스가 앉았다가 일어난 안락의자에 앉았고

요정은 그의 앞에다 인간들이 먹는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내놓더니

그녀 자신은 신과 같은 오뒷세우스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러자 그녀 앞에는 허녀들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내놓았다.

그들은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기를 실컷 즐겼을 때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세우스의 후손인,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뒷세우스여,
그대는 정말로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허더라도 부디 잘 가세요.

그러나 만약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운명인지 마음 속으로 안다면

그대는 날마다 그리는 그대의 아내를 보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바로 이 곳에 나와 함께 머물러
이 집을 지키며 불사의 몸이 되고 싶을 거예요.

진실로 나는 몸매와 체격에서 그녀 못지않다고 자부해요.
죽게 마련인 여인들이 몸매와 외모에서

불사의 여신들과 거론다는 것은 당치않은 일이나가요.”

그러자 그녀에게 지략이 뛰어난 오뒷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존경스런 여신이여, 그 때문이라면 화내지 마시오.

서러 깊은 페넬로페가 외모와 키에서 마주 보기에
그대만 못하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녀는 죽게 마련인데 그대는 늙지도 죽지도 않으시니 말ियो.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귀형의 날을 보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라오. 설혹 신들 중에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즙빛 바다 위에서 나를 난파시키시더라도

나는 가슴 속에 고통을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참을 것이요.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일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요. 그러니 어디 이들 고난들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려지요.”

이렇게 그는 말했다. 더욱고 해가 지고 어둠이 다가왔다.

그러자 둘은 속이 번 동굴의 맨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란히 누워 서로 사랑을 즐겼다.

이른 아침에 태어난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자

오뒷세우스는 지체없이 외투와 옷을 입었고

요정은 가볍고도 우아한 은빛 찬란한 قم직한 겹옷을 입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황금 허리띠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베일을 썼다.

그리고는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운 오뒷세우스를 보내 줄 공리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손아귀에 맞는 큰 도끼 한 자루를 주었는데

청동으로 만든 그 양날 도끼에는 올리브나무로 된

훌륭한 도끼자루가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어서 그녀가 잘 간 자커 한 자루를 주며 앞장서서

섬의 끝으로 길을 안내하니 그 곳에는 오리나무, 백양나무,
하늘에 닿을 듯한 전나무 같은 키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무들은 가볍게 물 위에 떠도록 이미 오래 전에 시들어

말라 있었다.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는 키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을 가리켜 주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나무들을 베기 시작했고 그의 작업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그는 전부 스무 그루의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 청동으로 열거지를

진 다음 그것들을 숨겨 좋게 깎아 목줄에 따라 똑바르게 했다.

그 동안에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나사송곳을 가져오자

그는 나무마다 구멍을 뚫어 그것들을 함께 이어 붙인 다음

나무못과 각쇠로 뿔목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목수 일에 밝은 사람이 재게 될

넉직한 짐배의 뱃바닥 넓이만큼,

꾸 그만큼 넓은 뿔목을 오뒷세우스는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작업을 계속하여 훌쩍한 늑제(助材)에 붙여

촉벽을 세웠고, 마지막으로 늑제 위에다 긴 널빤지를 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안에 돛대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활대를

만들었으며 그 밖에도 그는 방향을 잡기 위하여 키클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방에다 너울을 막아 주도록

비둘기깃으로 울을 뿔고 바닥에는 나뭇잎을 수북이 쌓았다.

그 동안에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칼립소가 그에게 돛을 만들 천을

갖다 주자 이것도 그는 능숙하게 만들었다.

그는 뿔목 안에 활대줄들과, 돛을 올리고 내리는 줄들과, 돛 아래쪽을 매는

줄들을 달고 나서 더욱고 지렛대로 뗏목을 신성한 바닷물 위로 끌어내렸다.

나중에 버던 날 그는 모든 것을 완성했다.

늦게 깨 버던 날 칼렘소는 목욕시켜 주고

항기로운 옷을 입혀 준 다음 그를 섬에서 보내 주었다.

여인은 뗏목 안에다 기죽 부대 두 개를 넣어 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검은 포도주가 든 것이었고 큰 것은 물이 든 것이었다. 그녀는 또

기죽 지루에 질 양식을 넣어 주었고 반찬도 넉넉히 넣어 주었다.

이윽고 그녀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뽕을 보내 주자

고귀한 오뒷세우스는 기뻐하며 바람에 돛을 펼치고는

앉아서 키로 능숙하게 방향을 잡았고,

그의 눈꺼풀에는 잠이라고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는 줄곧 플레이아데스¹³⁾와 늦게 지는 보오테스¹⁴⁾와

사람들이 잠수레라고도 부르는 큰곰¹⁵⁾을 쳐다보고 있었다.

큰곰은 같은 자리를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큰곰만이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가하지 않기¹⁶⁾ 때문이다.

여신들 중에서도 고귀한 그녀는 바다를 항해할 때

이 별을 항상 왼쪽에 두라고 그에게 일러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열이데 동안 바다를 항해했고

열이데레께 버던 날 가장 가까운 곳에

피아케스족의 나라의 그늘진 언덕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안갯빛 바다 위에 쇠기죽 방패¹⁷⁾가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지를 흔드는 통치자가 아이티오피아 인들에게서

돌이오던 길에 멀리 솔뤼모이족¹⁸⁾의 산들에서 그를 발견했다.

바로 그 곳에서 바다를 항해하던 오뒷세우스는 그의 눈에 띄었다. 그러자

그는 마음 속으로 크게 화가 나 머리를 흔들며 자신의 마음을 항하여 말했다.

“아이 나 아이티오피아 인들 사이에 가 있는 동안 신들은

오뒷세우스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을 반복했음에 틀림없어.

그는 지금 피아케스족의 나라 가까이 가 있고, 그 곳에서 그는

그가 걸려든 고난의 큰 울가미에서 벗어나도록 경계해 있으니 말야.

그러나 내 이르노니, 나는 아직도 그를 수많은 재앙의 길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손에 삼지창을 집어들고는

구름을 모으며 바다에 파도를 일으켰다. 그는 온갖 바람의

폭풍이 한꺼번에 일게 했고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구름으로 쌓으며 하늘에서는 밤이 다가왔다.

동풍과 남풍이 서로 부딪치는가 하면 거칠게 불어대는 서풍과

큰 너울을 굴리는 맑은 대기 속에서 태어난 북풍도 서로 부딪쳤다.

그러자 오뒷세우스는 그만 무릎과 심장이 풀리고 말았고

자신의 고매한 마음을 항하여 침통하게 말했다.

“오오 나야말로 비참하구나! 드디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

여신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닐까 두렵구나.

내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바다에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여신이 말했거늘 이제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는구나.

꼭 그렇게 제우스께서는 넓은 하늘을 구름으로 둘러싸시고

바다에는 파도를 일으키셨으며 온갖 바람의 폭풍이 한꺼번에 몰려 오는구나.

이제 나의 갑작스런 파멸은 의심할 여지도 없어.

이트레우스의 아들들을 기쁘게 해 주려다가 그 때 넓은 트로이아 땅에서

죽은 펠레우스의 아들¹⁹⁾을 돌려싸고 가장 많은 트로이아 인들이

너를 항하여 청동 날이 박힌 창을 내던지던 날

나도 죽어서 운명을 맞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나를 위하여

강해가 치러졌을 것이고 아카이아 인들은 내 명성을 널리 퍼뜨렸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나는 비참한 죽음의 포로가 될 운명인가 보구나!”

이렇게 그가 말했을 때 큰 너울이 무섭게 돌진해 오더니

그를 위에서 내리덮쳤고 그러자 뗏목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뗏목에서 멀리 나가떨어졌고 두 손에서 키를 놓아버렸다.

한때 어우러진 바람들의 일진광풍(一陣狂風)이

북대의 한가운데를 꺾어 버리자 돛과 활대가

활리 바다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한참 동안 너울은 그를 물 밑에 붙들고 있었고

그는 돌진해 오는 큰 너울 밑에서 재빨리 떠오를 수가 없었으니

305

310

315

320

만들었다. 전령이 소리가 낭랑한 포르밍크스를 들고 데모도코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데모도코스가 한가운데로 왔다. 그러자 무용에 능한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별로 훌륭한 무도장의 바닥을 쳤다. 오뒷세우스는

그들의 험란한 발놀림을 보고 마음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가인은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며 이레스⁸⁾와 고운 화관의 아프로디테의 사랑에 관하여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헤파이스토스⁹⁾의 집에서 물레 동침하게 되었는지 멋있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레스는 그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는 주인인 헤파이스토스의 침상과 잠자리를 더럽혔던 것이다. 그러자 당장 헤파이스토스에게 사자(使者)가 왔으니 그들이 사랑으로 동침하는 것을 헬리오스가 보았던 것이다.

헤파이스토스는 이 가슴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음 속으로 재앙을 공리하며 자신의 대장간에 가서

모루대 위에다 큼직한 모루를 올려놓고 그들 돌이 꿈쩍 못 하고 거기 그대로 머물도록 부술 수도 풀 수도 없는 사슬들을 만들었다.

그는 아레스에게 화가 나서 이런 율기미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침상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침대 기둥들 주위에다 온통 사슬들을 드리웠다.

또 천장에서 많은 사슬들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었는데 거미줄처럼 섬세해서 아무도, 축복받은 신이라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만큼 교묘히 그것들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는 침상 주위에다 온통 율기미를 드리우고 나서

둔튼하게 지은 도시인 램노스¹⁰⁾로 가는 척했으니

그에게는 그 곳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황금 고배의 아레스도 눈먼 파수를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름난 기술자인 헤파이스토스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고는 고운 화관의 퀴테레이아¹¹⁾와의 사랑을 열망하며

유명한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병금 강력한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아들의 걸을 떠나 집에 돌아와 앉아 있던 중이었다. 그 때 아레스가 집 안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이여, 자, 우리 침상으로 가서 사랑을 즐기도록 해요. 헤파이스토스는 더 이상 집에 있지 않고 벌써 램노스로 무뚝뚝한 목소리의 신티에스족¹²⁾에게로 가버렸소.”

이렇게 그가 말하자 그녀에게도 그와 높은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침상으로 가서 자려고 누웠다. 그러나 그들 주위에는 매우 영리한 헤파이스토스의 교묘한 사슬들이 드리워져서 그들은 사지를 움직일 수도 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야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램노스 땅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서서 그들에게 다가갔으니

헬리오스가 땅을 보고 있다가 그에게 일러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대문간에 쇠고 사나운 노여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무시무시하게 고향을 지르며 모든 신들에게 외쳤다.

“아버지 제우스와 영생하고 축복받은 다른 신들이여,

아리로 오셔서 이 가소롭고도 참을 수 없는 짓들 좀 보시오.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는 내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언제나 임신여기며 난폭한 아레스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잘 쟁기고 다리가 곧으나 나로 말하면 허약하게

대어났기 때문이지요. 그 책임은 다름 이가 아니라 내 부모님께

있지요. 차라리 그분들께서 나를 낳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분들은 이들이 내 침상에 올라 대채 어디서 사랑의 동침을 하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것이요. 나는 그것을 보기가 심히 민망하오.

그러나 생각건대, 이들은 열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그렇게

나의 있고 싶지 않을 것이요. 이들은 곧 동침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질 것이요. 그러나 율기미와 사슬은 이들을

멀두고 있을 것이요. 내가 이 파렴치한 딸 때문에

진내 준 구혼선물들을 그녀의 아버지가 내게

해임없이 다 돌려주기 전에는 말이오.”



이렇게 그가 말하자 신들은 문턱이 청동으로 된 그 집으로 모여들었다.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도 왔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헤르메스도 왔으며 명궁(名弓) 아폴론도 왔다.

그러나 여신들은 부끄러워서 각자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하여 복(福)을 가져다 주는 신들은 대문간에 들어섰고 매우 영리한 헤페이스토스의 솜씨를 보았을 때

축복받은 신들 사이에 그칠 줄 모르는 웃음이 일었다.

가까이 있는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신들도 더러 있었다.

“나쁜 짓은 잘되는 법이 없고 느린 자가 날랜 자를 따라잡는 법이지.

지금 느린 헤페이스토스가 올림포스에 사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날랜 아레스를 잡았듯이 말이요. 그는 비록 절름발이지만 기술로 잡았던 것이요. 그러니 아레스는 간통의 벌금을 물어야만 하요.”

이렇게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왕이 헤르메스에게 말했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여, 신들의 사자여, 복을 가져다 주는 자여.

그대 같으면 설사 강력한 사슬들에 꼭 붙들린다 해도

침상 위에서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놓고 싶겠소?”

그러자 그에게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살해자가 말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명궁 아폴론 왕이여.

세 배나 많은 사슬들이 இரு 해야될 수 없이 많은 사슬들이 나를

잡는다 해도 그리고 신들과 모든 여신들이 돌려다룬다 해도

그래도 나는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놓고 싶소이다.”

이렇게 그가 말하자 불멸의 신들 사이에 웃음이 일었다.

그러나 포세이돈을 웃지 않고 이름난 예술품의 헤페이스토스에게

아레스를 풀어 주라고 지꾸만 간청했다.

그는 볼 호르듯 거침없이 말했다.

“풀어 주시오. 내 약속하기나와, 그는 스스로 그대의 명령에 따라

불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합당한 벌금을 다 지불하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에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말했다.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여, 내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살로 없는 자들을 위하여 보증을 서게 한다는 것은 살도 없는 것이지요.¹³⁾ 아레스가 빛과 사슬에서 벗어나 기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불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를 묶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에게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이 말했다.

“헤페이스토스여, 아레스가 빛을 피하여 도망쳐 버린다면

나 자신이 그대에게 그것들을 지불할 것이요.”

그러자 그에게 유명한 절름발이 신이 대답했다.

“그대의 이런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헤페이스토스의 힘이 사슬을 풀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 둘은 강력한 사슬에서 풀려나자

각체없이 내달아 아레스는 트라케¹⁴⁾로 가고

웃음을 좋아하는 아프로디테는 퀴프로스의 파포스에 닿았으니

그 곳은 그녀의 성역(聖域)과 향기로운 제단이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 카리테스 여신들이 그녀를 묵묵시켜 주고 나서

영생하는 신들의 살갓을 덮고 있는 것과 같은 불멸의 기름을 발라 주고

보기에 장관인 사랑스런 옷들을 입혀 주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기인이 부른 노래였다.

오뒷세우스는 듣고 마음 속으로 즐거워했고

이름난 뱃사공들인 긴 노의 피아아케스족도 마찬가지였다.

알키노오스는 이번에는 할리오스와 라오다머스에게 단 둘이서

춤추도록 명령했으니 어느 누구도 그들의 땃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명한 폴뤼보스가 이들을 위하여 만들어 준

아름다운 자줏빛 공을 손에 쥐더니

한 사람이 몸을 뒤로 젖히고는 그늘을 지어 주는 구름을 향하여

그 공을 던지면 다른 사람은 대지에서 높이 뛰어올라

발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가볍게 그것을 받았다.

그들은 공 높이 던지기를 시험해 보고 나더니

이번에는 풍요한 대지 위에서 춤추기 시작하며

서로 공을 주고받곤 했다. 그러자 경기장에 서 있던

다른 젊은이들이 거기에 맞춰 박자를 치니 큰 소음이 일었다.

훌륭한 집안으로 났던 함선들을 타고 출항하고 다른 일부는 이미 트로이아인들의 회의장에서 목마에 몸을 숨기고는

병성도 저지른 오뒷세우스 주위에 앉아 있던 대목에서 시작되었다.

목마는 트로이아인들이 손수 성채로 끌어들었던 것이다.

목마가 서 있는 동안 트로이아 인들은 그 주위에 모여 앉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조인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으니, 그것은 속이 빈 목조물을 무자비한 청동으로 쪼개 버리거나 아니면 꼭대기로 끌고 가 바위에서 내던져 버리거나 아니면 신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하여 크나큰 자랑거리로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 조안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으니 트로이아 인들에게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 주려고 아르고스인들의 정수들이 그 안에 앉아 있던 거대한 목마를 받아들이자마자 도시는 파멸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어떻게 이카리아인들의 아들들이 속이 빈 매복처를 버리고 말에서 쏙아져 나와 도시를 함락했는지, ⁴⁸

그리고 어떻게 제각기 다른 곳에서 가파른 도시를 파괴했는지 노래했다.

그는 또 어떻게 오뒷세우스가 신과 같은 메넬라오스와 함께 마치 아테스와도 같이 데이포보스의 집으로 갔는지 노래했다.

그 곳에서 오뒷세우스는 가장 무시무시한 전투를 감행했으나 결국에는 늠름한 아테네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이것이 유명한 가인이 부른 노래였다. 그 때 오뒷세우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 눈물이 그의 눈꺼풀 밑 두 불을 적셨다.

마치 어떤 여인이 도시와 자식들로부터 저 무자비한 날을 물리치다가 자신의 도시와 백성들 앞에서 전사(戰死)한

사랑하는 남편 위에 쓰러져 통곡하듯이 —

여인은 남편이 허우적거리며 죽아가는 것을 보고는 그를 끌어안고 대성통곡(大慟痛哭)하는데 뒤에서는

작은 창으로 그녀의 등과 어깨를 치며

노고의 고난을 겪도록 그녀를 노예로 끌고가니

더없이 애절한 슬픔이 그녀의 두 불을 사들게 한다 —

꼭 그처럼 애절하게 오뒷세우스의 눈썹 밑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오직 한 사람 알기노오스만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볼 수 있었으니 그와 가까이 앉아 있어 그가 크게 신음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즉시 노를 사랑하는 파이아케스족 사이에서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파이아케스족의 지도자 및 보호자들이여.

데모도코스는 소리가 낭랑한 포르핑크스를 중단하도록 해요.

그의 이러한 노래가 모든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신과 같은 가인이 노래하기 시작한

그 때부터 이 나그네가 비통한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말이요.

아마도 큰 슬픔이 그의 마음을 애워싼 것 같소이다.

그러니 자, 가인은 중단하도록 해요. 우리 모두가, 주인들과 손님 다 함께 들릴 수 있도록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이요.

사실이 모든 것이 존경스런 나그네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겠소!

호송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준 사랑의 선물도.

지혜가 조금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나그네와 탄원자는 형제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대도 이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고는 내가 묻는 것이면 무엇이든 숨기지 마시오. 그대가 말씀하시는 편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요.

그대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오. 저 쪽에서 그대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대를 부르는

이름 말이요. 귀천(貴賤) 불문하고 일단 태어나게 되면

친히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부모는 자식을 낳자마자 누구에게나 이름을 지어 주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대의 나라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도시를 내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 배들이 그 곳을 거당하여 그대를 그리로 실어다 줄 수 있도록 말이요.

파이아케스족에게는 키잡이도 없고

자본 배들이 갇히고 다니는 것과 같은 키도 없으며

그들의 배들은 스스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있지요.

그 배들은 모든 인간들의 도시들과 기쁨진 들뜬들을

알고 있어 이들과 인게에 싸인 채 가장 빨리
잔 바닷물의 심연을 건너며

손상이나 파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일찍이 알지 못하오. 물론 나는
전에 나의 아버지 나우시토오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은
있소.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준다고 해서
포세이돈께서 우리에게 화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분께서는 또 그래서 인젠가는 피아아케스족의 훌륭한게 만든
배가 호송에서 돌아올 때 안갯빛 바다에서 그 신께서 그것을 부숴 버리시고
우리 도시는 큰 산으로 둘러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이렇게 노인께서는 말씀하셨소. 신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아니면 이루지 않고 내버려 두시든 그분의 뜻대로 되시기를!
그러니 저, 그대는 이 점에 대하여 내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그대는 어느 쪽으로 떠돌아다녔고 어떤 나라들과 인간들에게 가셨는지
인간들 자신과 그들의 살기 좋은 도시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오.

그대는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혹하고 야만적이고 외롭지 못했으며
어떤 자들이 손님에게 친절하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오. 그대는 또 왜 그대가 아르고스의 다나오스 인들과 일리오스의
운명을 돕고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속으로 슬퍼하시는지 그 까닭도

말씀해 주시오. 그 운명은 신들께서 만드신 것이요. 신들께서 인간들에게
피멸의 실을 자으시니까요. 이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노랫거리가 있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혹시 그대의 친척이 일리오스 앞에서 전사했던가요?

그는 사위였던 장인이었던 톨림없이 고귀한 사람이었겠지요.

사실 사위와 장인은 우리 자신의 혈육 다음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아니면 다정하고 고귀한 어떤 전우가 전사했던가요?

슬기로운 것들을 알고 있는 전우야말로
형제나 다름없으니까요.”

제9권

오뒷세우스의 이야기들 / 퀴클롭스 이야기

그러자 그에게 지략이 뛰어난 오뒷세우스가 이런 말로 대답했다.

“통치자 알기노오스여,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빼어난 이야.

독소리가 신들과도 같은 이런 가인에게

퀴기를인다는 것은 확실히 이름다운 일이지요.

나는 전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오.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며 집 안에 나란히 앉아

자인에게 퀴기를이고 그들 앞의 식탁들에는

향과 고기가 가득하고 술 따르는 이는 희석용 동이에서

술을 떠 가지고 외서는 술잔에 따라 주고 있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이름다운 일인 것 같소이다.

하거늘 그대의 마음은 나의 고난과 한숨에 관하여 묻고 싶어하시는구려.

내가 더욱더 슬퍼하고 한숨짓도록 말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무엇을 나중에 이야기해야 하죠?

당들의 신들께서 내게 고난을 많이도 주셨으니까요.

이제 먼저 내 이름을 말씀드리겠소이다. 그대들도 그것을 알도록

고리고 내가 무자비한 날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록 멀리 떨어진 집에서

일더라도 여전히 그대들의 손넙으로 남아 있도록 말이요.

나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뒷세우스를시다. 나는 온갖 책략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내 명성은 하늘에 닿았소이다.